



송진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⑥ (修習止觀坐禪法要)

總說 3 止是禪定之勝因觀是智慧之由籍

이 두 구절에선 '지관' 수행법은 서로가 동시적으로 말발침이 되는 상호관계성의 의미를 말하고 있다. '지' 수행을 닦아야만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를 칠 수 있다. 따라서 '지' 수행은 선정삼매를 이루는 뛰어난 원인이며 선정삼매는 '지'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훌륭한 결과이다. 선정은 바로 삼매를 의미한다. '지'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삼매를 얻을 수 있겠는가. '삼매(三昧)'는 번역어이다. 이를 한문으로 의역하면 '정정(正定)' 또는 '조직정(調直定)'이라고 한다.

선정과 지혜 원만하게 성취해야 자타 함께 이익 나눌수 있어

우리 중생들은 하루 종일 허겁지겁 동분서주하면서 조화롭고 곧은 마음을 쓰지 못한다. 이는 마치 요동치는 항아리 속의 탁한 물은 고요하게 안정시켜야만 맑아지는 것과도 같다.

이처럼 탁하고 시끄러운 마음을 담연하게 고요한 마음으로 오래도록 수행한다면 자연스럽게 청정해질 것이다. 옛사람은 이 점에 대해 '삼라만상이 목전에 나타난다 해도 나의 중심은 시끄럽게 요동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우리가 만물에 무심할 수만 있으면 만물에 항상 예외되어 있다 한들 그것이 무슨 방해가 되겠는가. 이는 마치 무쇠로 만든 감정없는 소는 사자의 포효소리에도 두려워 하지 않고 나무로 조성한 장승은 아름다운 꽃이나 재잘대는 새를 본다 해도 전혀 느끼지 않는 것과 같다.

삼라만상이 목전에 어지럽게 나타난다 해도 자신의 마음은 담담하고 적적하기만 하여 산란심으로 요동하지 않고 항상 선정 속에 있다. 우리가 이 같은 선정삼매를 아직 얻지 못했다면 반드시 '지' 수행을 닦아야만 산란하게 움직이는 망상을 정지할 수 있다. 때문에 "지를 닦으면 그것이 선정삼매의 결실임을 이룰 수 있는 훌륭한 씨앗이다"라고 하였다.

이어서 "관수행을 하면 지혜가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일어난다"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지혜는 무엇을 따라서 일어나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 지혜는 반드시 '관' 수행을 통해서만 얻어진다. 때문에 "관수행을 의지해 지혜가 일어난다"고 하였다. '관'의 의미를 말해본다면 관조(觀照)이다. 이는 선종(禪宗)에서 '화두를 틀어켜 관조한다' 한 경우와 '반야심경'에서 '조견오온계공' 했을 때의 '관조'의 의미와 동일하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지' 수행을 따라서 '관' 수행에 도달하며 '지'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선정을 바탕으로 '관' 수행을 따라 일어난 지혜가 발현한다.

다시 말해서 '관'은 '지'를 따라서 일어나고 '혜'는 '정(定)'을 통해서 발현한다.

이를 두고 '지관쌍운(止觀雙運)' '정혜동지(定慧等持)'라고 한다.

부처님 경전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결립 없는 청정한 지혜는 그 모두가 선정삼매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하였다.

'관' 수행을 통해서 지혜관조의 작용이 환하게 나타나야만 일체제법이 허깨비와 같음을 통달하고 일체제법이 있다 해도 그 실체가 없음으로 공(空)이며, 실체 없는 제법이 다시 인연을 따라 일어났으므로 현상세계는 목전에 있다 해도 가(假)이다. 이 둘은 '공'이면서 '가'이고 '가'이면서 '공'이므로 '공'과 '가'가 둘이면서도 둘이 아닌 '중도'의 이치인 것이다.

그러므로 선정과 그에 따른 지혜를 얻으려면 '지관'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모든 종파의 수행인들

마음이 혼란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처님 명호를 더욱 분명하게 부르는 것은 '관'이다.

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향을 사르고 꽃을 올리고 예불하고 경전을 독송하는 등등이 모든 수행문이 '지관'이라는 두 법문을 떠나지 않는다. 이것이 '지관' 수행의 효용이다.

若人成就定慧二法 斯乃自利利他皆具足
여기에서는 '지관'을 수행하면 뛰어난 이익이 있음을 밝혔다. '지'는 선정(禪)을 이루는 근본(因)이고 지혜(慧)는 '관' 수행의 결과(果)이다. 가령 수행인이 정혜(定慧)를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자리아타행을 일으킬 수 있다. 자리는 모든 중생에게 인רח함을 부여하는 대자(大慈)의 마음이고 이하는 모든 사람들의 괴로움을 없애주는 대비(大悲)의

當知此之二法 如車之雙輪 鳥之兩翼 若偏修習 即墮邪倒
여기서는 지관수행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경우 그에 따른 폐단을 지적하고 있다.

'지' 통해 자리의 선정 얻어 복덕으로 장엄 '관' 수행으로 이타의 지혜 얻어 지덕 겸수

이 각각각색 다른 모습으로 수행을 한다 해도 그 모든 수행은 '지관'의 이치를 벗어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열불수행과 좌선참구로 부터서 간경을 하는 데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수행이 실제에 있어선 '지관'의 이치를 의지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예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경전을 독송할 경우 지극일념으로 경전의 도리에 집중하여 마음이 혼란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지'이고 경전을 통해서 얻어진 도리를 의식으로 분명하게 관조하는 것은 '관'이다.

또 하나의 예를 더 든다면 우리가 열불수행을 할 때에 나무아미타불 명호를 입심으로 지니면서 마음이 혼란하지 않은 상태가 '지'이고

마음이다. 수행인이 자리의 선정과 이타의 지혜를 만족하게 갖춘다면 자비와 지혜를 치우침 없이 쌍으로 윤행할 수 있고 자타가 함께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이는 지관수행을 겸수함으로써만 이루어진다.

故法華經云 佛住大乘 如其所得法 定慧莊嚴 以此度衆生
여기서는 '법화경'에서 인용하여 지관수행으로 얻어진 뛰어난 이익을 증명하고 있다.

이 문제를 법화경에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부처님은 지관이 틀어지지 않는 대승법 가운데 머물면서 거기에서 얻은 법에 걸맞게 지관정

혜의 힘으로 정엄하지 않음이 없으시다. 지를 통해 선정을 얻어 복덕(福德)으로 장엄하고 관수행으로 혜를 얻어 지덕(智德)으로 장엄하였다. 부처님은 이처럼 복덕과 지덕이 두 가지 덕으로 자신본성을 장엄하여 복덕 지덕과 그 자성이 틀어지지 않는 요묘한 장엄을 하였다. 지금 부처님은 자신이 장엄한 선정과 지혜로 다시 모든 중생까지 장엄하여 이로써 모든 중생을 제도하신다.

부처님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복덕과 지덕이 둘인 셈이다. 이 지관수행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當知此之二法 如車之雙輪 鳥之兩翼 若偏修習 即墮邪倒
여기서는 지관수행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경우 그에 따른 폐단을 지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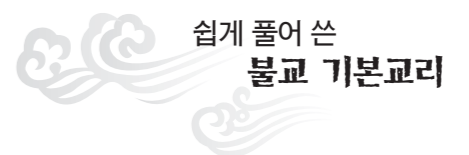
마땅히 알아야만 된다(當知)이 두 글자는 경쾌하고 훈계하는 말이다. 그 의도는 지관을 쌍으로 닦아야 한다는 의미를 모른다면 올바른 법도로 쉽사리 승진하지 못함을 말하고 있다.

지관 두 법을 비유한다면 수레의 양쪽 바퀴와 같다. 또 새의 양 날개와도 같다. 수레는 양쪽 바퀴가 있어야만 천리 먼 길을 갈 수 있고 새는 두 날개가 있어야만 드높은 하늘로 날아 오를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관 두 법을 하나만 합하면 둘 다 아름답겠지만 서로를 따로 분리한다면 양쪽 수행 모두가 손상되므로 이 둘 가운데 어느 한쪽도 결손되선 안된다.

가령 선정에만 치우치고 지혜를 소홀히 한다면 바퀴 마른 선정에 떨어지고 반대로 지혜만 소중히 여기고 선정을 파기한다면 미친 지혜를 이루게 되어 이 둘의 경우가 똑같이 병통이다. 그러므로 다음의 문장에서 경전에서 인용하여 이 의미를 증명하고 있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쉽게 풀어서 불교 기본교리

業은 모든 괴로움의 원인 ②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든 유정들이 현재 그가 누리고 있는 상황이 괴로움이나 혹은 즐거움이나 하는 것의 그 실제적 원인은 그가 지은 행위의 선악에 따른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혹 어떤 사람은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유정들의 행위에겐 선업·악업·무기업이라는 각자 다른 형태가 있다면, 이 가운데서 선업의 행위에 따른 즐거움의 과보도 있어야만 온당한 일인데도 무엇 때문에 일체중생의 현실은 오직 괴로움의 과보만 있을 뿐인가?"

이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생활에서 감정(受)으로 받아들이고 느끼는 괴로움(苦受)과 즐거움(樂受), 그리고 무감각의 상태(捨受), 이 모든 감정 형태의 차이를 그 근원적인 중도제일의제(中道第一義諦)에서 보면 그 모두가 오직 괴로운 감정에만 포섭될 뿐입니다.

유류선업의 즐거움 '괴고'에 포섭

시간 참모습 일체개고서 인벤토리

이른바 삼고(三苦)라고 하는 고고(苦苦)·괴고(壞苦)·행고(行苦)와 이를 부르는 원인에 해당하는 선악업도(善惡業道)는 이들 중도제일의제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동일하게 생사의 모습인 하나의 유류법(有漏法)에 해당됩니다.

유류선업(有漏善業)은 설사 즐거움 감정의 과보를 받는다고는 하나 우리가 상대적으로 느끼는 즐거움이란 그 즐거움이 항상 즐거움 자체로 고정불변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누린 만큼 괴로움은 정비례하여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모든 유류선업의 즐거움은 삼고 가운데 즐거움이 무너지면서 받는 고통인 '괴고'에 포섭되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감정만 그럴 뿐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의 부동업(不動業), 즉 고락(苦樂) 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유류삼매에 있어서도 이는 완전한 무무해탈이 아니라, 단지 극도로 미세한 의식분별이 진행되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일정기간 이루어지고 있는 무감각상태일 뿐이므로 이 도 역시 삼고 가운데 '행고'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업마저도 결국은 괴로움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삼고 가운데서 '고고'는 괴로움 그 자체는 괴로움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당연히 괴로움에 해당되지만, 나머지 즐거움을 부르는 복업이나 또는 유류삼매를 부르는 부동업까지도 '괴고'와 '행고'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세간의 참모습은 '일체개고(一切皆苦)'인 것입니다.

■정리=張如舟

값진 성찰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동국대학교는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상황으로 인하여 모교를 아끼는 동문들과 2천만 불자를 포함한 국민여러분께 뜻하지 않은 큰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저희는 이번 상황을 뼈아픈 자기성찰의 계기로 삼아 크게 뉘우치고 크게 깨닫겠습니다.

100년사학 동국대의 역사는 동국대만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 자랑스런 전통의 맥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더 막중한 소명감을 갖고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새롭게 변화해갈 저희 동국대의 미래를

애정어린 격려와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주말마다 가까이서 부처님 만나는 기쁨!

현직 불교대학 교수들이 부처님 탄생에서부터 현대불교의 세계적 흐름까지 불교 전체에 대한 안목을 키워드립니다. 수행자 스님들의 수행법과 살아있는 생활법문이 여러분의 삶을 즐겁고 향기롭게 합니다.

정각원 토요법회

- 시간 :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
- 장소 : 동국대학교 정각원 법당
- 대상 : 일반인 및 동국가족

수행상을 위한 입시 기도

- 일 시 : 2007. 10. 20(토), 27(토), 28(일) 오전 9시 30분
- 장 소 : 동국대학교 정각원 법당
- 접수방법 : 정각원 방문 또는 전화로 미리 접수
- 접 수 처 : 정각원 사무실 (☎02-2260-3016~7)

법회 및 강연 일정

일	일	주	제	강·법사	비 고
10	6(토)	기도·생활법회		혜거 스님	금강선원장
	13(토)	부처님의 이해 I - 출가와 수행		혜주 스님	불교대학 교수
	20(토)	부처님의 이해 II - 깨달음과 내용		정승식	불교대학 부학장
	27(토)	부처님의 이해 III - 교화와 말만		계환 스님	불교대학 교수
	3(토)	장지 순례 - 불교 문화유적 탐사		김종관	예술대학 교수
11	10(토)	불교의 수행 I - 간경과 독송		김운성	불교대학 교수
	17(토)	불교의 수행 II - 불교와 수행		성민 스님	불교문화대학 교수
	24(토)	불교의 수행 III - 수행의 구조		혜원 스님	불교대학 교수
	1(토)	기도·생활법회		진옥 스님	선원사 주지
	8(토)	불교의 수행 IV - 열불수행		보상 스님	불교대학 교수
12	15(토)	불교의 수행 V - 선 수행		보상 스님	불교대학원 원장
	22(토)	불교문화 - 불교와 한국 전통문화		김상현	문화대학원 원장
	29(토)	세계 속의 불교 - 현대 세계불교		김용표	불교대학 교수

- 심전배 철야정진
- 일시 : 매일 첫째 토요일 저녁 8시 30분 ~
- 장소 : 동국대학교 정각원 법당

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 T.022260-3016,3017 F.022260-3744 홈페이지 http://jeonggak.dongguk.edu 동국대학교 정각원